# 지(止)와 관(觀)은 서로 보완하는 것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걷거나 멈추어 있거나 눕거나 일어날 적에 모두 지(止)와 관(觀)을 함께 실천해야 한다. 이른바 모든 존재의 자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곧 인연으로 화합하는 선악의 업과 괴로움이나 즐거움 등의 과보가 상실되거나 부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비록 인연의 선악 업보를 생각하지만 또한 그 자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만약 〈지(止)〉를 닦는 자는 범부들의 세속적 환경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것을 대치하고 능히 이승(二乘)인 성문(聲聞), 연각(緣覺)들의 겁내고 나약한 소견을 버려야 한다. 만약 〈관(觀)〉을 닦는 자는 이승들이 대비심을 일으키지 않는 협소하고 못난 마음의 허물을 대치하고 범부들이 선근을 닦지 않는 것과는 멀리 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지〉와 〈관〉의 문이 함께 상호 보완적인 역할로 서로 맞물려 작용해야만 한다. 만약 〈지〉와 〈관〉이 함께 갖추어지지 않으면 깨달음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본문의 이 말은 거듭 〈지〉와 〈관〉을 함께 닦아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객관적 사물은 본래 그 사물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치를 잘 생각하여 그릇된 소견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말하자면 공(空)의 이치를 잘 알아 어디에도 치우친 집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는 인과응보(因果應報)의 도리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비록 선악의 인과법칙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선이나 악이 영구불변의 고유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를 실천할 때는 세속적인 집착의 어리석음을 고쳐야 하고 동시에 소승의 수행자들이 세상을 도피하고 세속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나약한 소견을 가져서도 안 된다 하였다. 묘한 것은 〈지〉가 정적인 수행임에도 이승을 배제하는 대승의 마음에 입각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점이다. 이는 소승과 대승의 차이를 소승은 아공(我空)만을 알고 법공(法空)을 모른다고 보고, 대승은 아공은 물론 법공까지 알고 있다고 보는 관점에 의거한 이야기라 볼 수 있다. 『금강경』에서 밝힌 아공, 법공의 이치를 이승들의 경계에서는 다 알지 못하므로 이승들은 〈지〉를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공이란 일체 유위법에 실체가 없다는 뜻으로 쓰는 말인데 자아의 자성이 없이 오온에 의해 임시적으로 구성된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인아공(人我空), 혹은 인무아(人無我)라고도 말한다. 또 법공(法空)은 법무아(法無我)라고 하여 외부의 객관 경계에 존재의 실체적 요소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승들이 아직 이 경지를 터득하지 못하므로 아공만 알고 법공을 모른다는 것이다.

**止, 이승 배제한 대승 마음에 입각**

**觀, 대비심 없는 수행 경계해야**

'기신론'의 핵심 단어인 진여를 〈기신론열망소〉에는 아공진여, 법공진여로 구분 설명하는 대목이 있다. 아공진여는 견혹(見惑), 사혹(思惑) 곧 지적(知的)인 번뇌와 정적(情的)인 번뇌인 번뇌장(煩惱障)을 완전히 끊고 그 결과로서 드러나는 진여를 말하고 법공진여는 소지장(所知障)의 장애를 완전히 끊고 얻는 무루지(無漏智)를 법공진여라 하였다. 또 이승들이 비록 번뇌를 끊고 아라한의 지위에 이르나 아공진여만을 증득한다고 말해 왔다. 〈기신론〉에서 이승들의 수행경지를 평가절하 하는 것도 대승심을 바탕으로 하는 수행이라야 진정한 수행임을 강조하는 뜻에서 이다. 중생의 마음이 본래 대승임에도 편협한 관념 속에 갇혀 대승의 근본 바탕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배척해 부수는 것이다. 주관의 모든 요소가 공할 뿐만 아니라 객관의 모든 요소도 다 공한 것임을 알 때 무루지(無漏智)의 완전함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한편 〈관〉을 실천할 때는 원력이 부족한 이승들의 편협하고 열등적인 생각들을 극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비심이 없는 수행을 경계하고 있다. 터무니없이 세속적 환경에 집착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것을 사갈시(蛇蝎視) 하고 회피하려는 연약한 자세로 수행에 임해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

결국 〈지〉와 〈관〉은 서로 보완적 관계로, 〈지〉의 약점을 〈관〉에서 보충하고 〈관〉의 약점을 〈지〉에서 보충하여 상호소통이 원만한 지관이 이루어져야 깨달음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

# 善은 나누는 실천행으로 완성된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㉟ 자비의 보시

**貧窮者不如有財者。有財者不如能食。能食者不如能施者。悲心施者善一切眾生。富者應施。施者應悲。富者能施富得堅牢。施者能悲施得堅牢。修施者得富。修定者得解脫。修悲心者得無上菩提° 果中最勝。(빈궁자불여유재자。유재자불여능식。능식자불여능시자。비심시자선일체중생。부자응시。시자응비。부자능시부득견뢰。시자능비시득견뢰。수시자득부。수정자득해탈。수비심자득무상보리。과중최승。)**

번역

가난한 이가 재물이 있는 이만 못하고, 재물이 있는 이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이만 못하며,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이는 보시할 수 있는 이만 못합니다. 자비심으로 보시하는 이는 일체 중생을 선하게 만드나니, 부한 이는 응당 보시하며, 보시하는 이는 응당 자비심으로 해야 합니다. 부자는 보시할 수 있을 때 부함이 견고해집니다. 보시하는 이는 자비심으로 할 수 있을 때 보시가 견고해 집니다. 보시를 닦는 이가 부유해지며, 선정을 닦는 이가 해탈을 얻거니와, 자비심을 닦는 이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는데, 과보 가운데 가장 수승합니다.

해설

선함은 베푸는 마음 때문에 선하다. 더불어 나누는 실천행이 있을 때 완성된다. 각박한 인심은 가난한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나누는 마음이 없어 그렇다.

어쩌면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속담도 빈말이다. 가난한 이가 부자보다 못하고, 부자가 배불리 먹는 것만 못하다고 말한다. 부자여도 지나치게 인색하여 굶고 산다면 그 부유함이라는 것도 소용없는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처님의 이치는 한 걸음 더 나간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이도 보시하는 이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기준으로 되돌아가면, 가난하여도 베풀 수 있는 마음이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말이 된다. 이번 대장부론 5품은 자작시 하나 올리며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별의 기원

138억 년 전에 태어난 우주는 모든 조건이 균등했다네요.

그러다 수천분의 일이라는 온도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 발생했는데,

아주 조금 뜨거운 그것들이 중력에 의해 모이고 모여 별이 되었다네요.

저는 138억년이 얼마의 시간인 줄 잘 모르겠습니다.

수천분의 일이라는 개념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뜨거워진 것들끼리 모였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 모인 것들이 별이 되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사람도 원래는 모두 같지만

남의 아픔을 보면 눈물이 뜨겁고,

남의 행복한 일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조금이나마 더 뜨겁게 인생을 산 사람들은

캄캄한 밤 지나 아침 해가 떠도

빛나는 별이 되더군요.



향봉 스님의

# 一切唯心造

## 지금 이 순간

순간이 영원이다. 순간이 이어져 내일과 미래와 내생(來生)을 만든다지만 순간은 오늘의 지금, 이 순간뿐이다. 이 순간마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며 흘러가는 것이다. 지극히 짧은 한 순간도 머묾이 없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변모하며 바람처럼 아지랑이처럼 수증기처럼 다른 모양, 다른 것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순간에는 시간과 공간이 담겨있다. 꿈과 희망이, 행복과 자유가 깃들어 있는 것이다. 순간에도 생각의 윤회는 멈추지 않아 지킬도 되고 하이드도 되는 것이다. 보살과 투사도 되는 것이다.

순간의 찰나 지간에도 삶에서 느끼는 생(生)로(老)병(病)사(死)가 윤회하며 빛과 어둠, 우주의 빅뱅까지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지옥과 극락은 기본이요 아귀와 아수라 축생과 인간 사이를 오고가며 생각의 노예로 윤회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없으나 나는 있고 머묾 없는 머묾으로 소유욕과 집착심이 흔적과 자취를 남기며 빛과 어둠 사이를 윤회하는 것이다. 어제는 이미 지나가 미련둘 것이 없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아 두려울 것이 없는데도 오늘의 주인공이 되질 못하고 변두리와 모서리에서 아웃사이더의 소외감을 느끼며 사는 것이다.

염기염멸(念起念滅)이 곧 삶과 죽음인데 생각에 갇혀 생각의 자유인, 생각의 행복을 뒤로 미루며 복 짓는 불교, 내생(來生)의 왕생(往生)을 약속 받는 죽은 신앙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태초에 도(道)가 있었고 도(道)에서 일(一)이, 일에서 이(二)가, 이에서 삼(三)이, 삼(三)에서 만물이 비롯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만물의 존재를 연기법칙(緣起法則)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此有故彼有),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此起故彼起).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此無故彼無),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此滅故彼滅)'며 상호 의존적 연계원리로 영원불변의 독립적 존재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지전능(全知全能)의 브라흐만(Brahman)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지만 영원불멸의 아트만(Atman)의 존재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호 의존적 연계작용으로 보고 듣고 느끼며 분별하지만 그 기능의 작동과 작용이 멈추면 나(我)라고 내세울만한 그 어떤 존재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뇌의 작용이던 신경세포의 작용이던 그 작용의 연결고리가 동작을 멈추면 육체를 이룬 각각의 요소는 지(地) 수(水) 화(火) 풍(風)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영혼이라 하든 마음이라 하든 진여(眞如)라 하든 어떠한 영원불멸의 존재가 있을 경우, 중풍으로 쓰러져 반신(半身)이 마비될 경우 움직임과 감각작용을 잃을 경우 영원불멸 한다는 그 무엇의 존재는 왜 작용을 멈추고 침묵하는가?

육체는 사라져도 죽지 않고 윤회한다는 그 무엇의 존재는 왜 유년기, 청년기, 노년기의 육체의 변화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지며 육체의 기능을 따라가는가? 사람의 몸은 소우주라서 숱한 생명체의 집합체인데 들숨 날숨이 이어지지 않아 죽음에 이르렀을 경우 나(我)라고 하는 존재만 육도윤회하고 그 숱한 육체를 이룬 생명체들은 그럼 윤회 밖으로 사라진단 말인가?

**우리에겐 오늘, 지금의 이 순간만이 집착 없이 '無我'를 깨닫길 바랄 뿐**

육체의 대표가 나(我)이며 나는 마치 대통령 같은 존재이므로 나는 카르마(Karma)에 따라 윤회하고 육체를 이룬 다른 세포조직의 생명체들은 힘없는 백성과 같아 사라져야 된다는 논리인가?

부처님은 초기경전에서 수레를 해체하면 수레일 수 없고 뿌리, 줄기를 분해하면 장미꽃도 만날 수 없으며 불(火)을 이룬 짚단이 사라지면 불꽃의 기능도 사라지게 됨을 경전의 곳곳에서 자상하게 설명하며 무아(無我)를 일깨워 준다.

그러므로 전생(前生)을 불러들이거나 내생(來生)을 끌어들이지 말 일이다. 오로지 오늘의 지금 이 순간의 주인공이 되어 넉넉하게 당당하게 여유 있게 행복과 자유를 누리며 살 일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후의 세계, 육도윤회에 있는 게 아니라 현생의 오늘의 생각의 윤회를 줄여 평화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다. 오로지 우리에겐 오늘, 지금의 이 순간뿐이다. 자유와 행복을 위해 머묾 없이 집착 없이 진리와 한 몸을 이루며 무아(無我)를 사무치게 깨닫길 바랄 뿐이다.


자성을 찾아가는 근본불교

제 1 기생 길 따라 절로 가는 설봉포교원

6개월 과정 신입생 모집

화엄경(華嚴經)반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반 ~ 9시까지

반야심경(般若心經)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반 ~ 9시까지

• 입 학 식 : 9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

공부하는 날

• 화 엄 경 반 : 9월 2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반야심경 반 : 9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근본불교(根本佛敎)의 기본사상(基本思想)과 진여실상(眞如實相)을 화엄만다라(華嚴曼荼羅)와 반야(般若)의 지혜바라밀(智慧婆羅蜜)을 실천수행 하므로 즉신성불(卽身成佛)하는 참 불자(佛子), 법우(法友)의 법연(法緣)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신청서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설봉포교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131-5번지
010-5660-3653 주지스님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

입종 및 사암등록 모집안내

법인등록번호 : 205421-0000520

대한민국의 승려라면 누구나 부처님의 일불제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고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으로 병들어 가는 한국 불교를 바로잡아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책무를 펼쳐 나갈 사찰 및 각 지역 교구장, 종도님을 널리 모십니다.

사찰등록신청 제출서류

■ 사찰등록신청서 ■ 임대일 경우(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 법당사진(내, 외) 각 1매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지 임명 관련서류

■ 서약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진 3매(여권사진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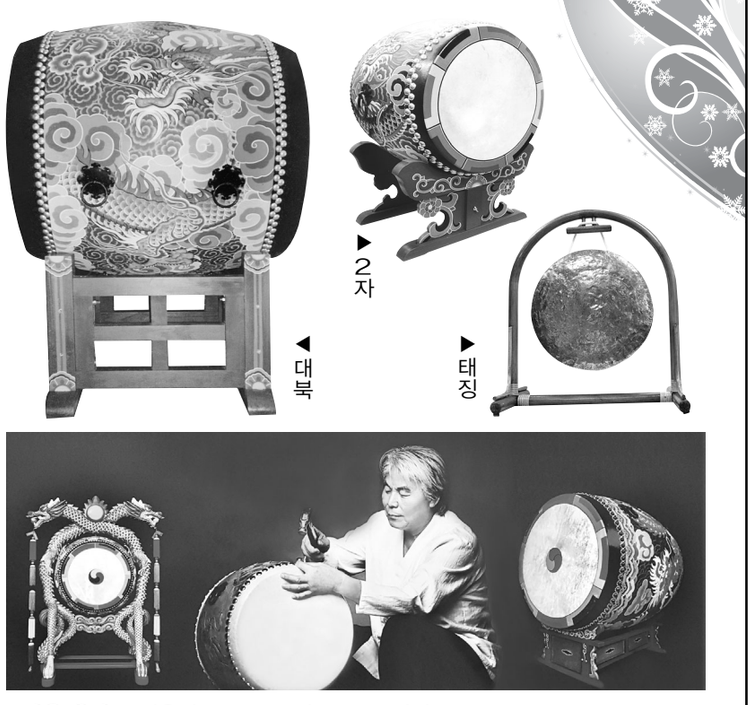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개혁회의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개인사암은 개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개혁회의 총무원

전라남도 영암군 산호리 614번지 ☎ 062)222-6366
대구시 동구 파계로 120길 91-1 자인사 종무실
010-6399-0020 / 팩스 053)984-1129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